“연령 · 상황별 불교성전 추가 제작을”

이미령 기획위원, 7월 1일 포교종책연찬회서 제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성전은 보급과 함께 많이 읽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령별, 상황별, 콘텐츠별 불교성전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을 앞두고 각 계층과 시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불교성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미령 불교성전 기획위원(북칼럼리스트)은 7월 1일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성전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80차 포교연찬회에서 “현재 발간을 앞둔 불교성전을 모본으로 맞춤형 불교성전 콘텐츠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위원은 “가령 어린이들에게 불교성전이 적합한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책과 비디오용으로 따로 불교성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불교성전〉 〈구연동화로 통한 불교성전〉 등 적합 주제를 따로 추려내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에게는 외국어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영어 불교성전, 스님들이 불교성전을 낭송하는 유튜브 콘텐츠, 장중한 느낌보다는 유머러스한 내용을 담은 불교성전이 좀 더 다가갈 것이다. 2030세대, 5060세대, 70대 이후 세대들과 각자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불교성전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성전〉은 조계종이 지난해 불교성전편찬추진위 발족 이후 발간작업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윤문과 감수과정을 갖는 중이다. 올해 10월 정식 발간 후에도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기획위원은 “정기법회, 군법회, 병원시설, 템플스테이 등에서 활용 가능한 상황별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획위원은 향후 맞춤형 불교성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도 내놨다. 이 기획위원은 인터넷 불교성전 개발에서 △위키디피아 형식의 자유로운 각주 △단어에 관련사진 팝업 제공 △백문백답 같이 질문에 답주는 프로그램 제공 △주제별 찬불가 연계 △듣는 불교성전 등을 제시했다.



이미령 불교성전 기획위원이 7월 1일 열린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불교성전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다.

불교성전 발간 막바지 작업서
2차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안
어린이용, 사경용, 전자책 등
활용 대한 전문가 목소리 모여

또 보급 방안으로 △포교사들의 유튜브 상 불교성전 주제 강의 △사경용 불교성전 개발 △지역별 불교성전 스터디 그룹 유도 △사찰 기본교육시 교재 활용 △불교성전 낭송, 사경대회 개최 △각국 언어별 불교성전 개발 등도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박유진 대불련 캠퍼스포교팀장은 “이번에 나올 불교성전을 1차 콘텐츠로 본다면, 앞으로 개발할 내용은 2차 콘텐츠일 것”이라며 “전자책 발간, 콘텐츠 공모전 활용, 인플루언서 콘텐츠 개발, 만화 · 애니메이션 · 게임 등 열린 콘텐츠 개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동 기획위원(前 교법사)도 ‘불교성전의 발간 의미와 활용방안’에서 “모든 불자들이 불교성전을 수지하도록 수지운동을 벌이고, 각종 법회서 의식상 경전 봉독에 불교성전 봉독을 넣으며, 불교성전 해설사를 개설하는 방안, 사찰이나 단체별 불교성전 소모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이사는 ‘불교성전 보급과 홍보방안’에서 “불교성전 발간을 불교 중흥의 계기로 삼기 위해 불서읽기 원년, 수지독송 캠페인, 사경대회 등 종단적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발간을 위한 출판사 컨소시엄을 통해 좀더 양질의 성전을 펴내고, 최근 영향력이 강해지는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과 네이버와 이메일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책을 필요한 곳에 발송하지만, 웹자보와 SNS상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든 종교활동이 그렇듯 불자들의 신행의 근본은 부처님 가르침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이 경전이다. 통일된 불교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발간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교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참여했으며, 전체 진행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불교 성보 국보 · 보물 지정예고 잇달아

범어사 ‘삼국유사’ 국보승격
‘삼화령 애기부처’ 보물지정
원당암 · 갑사 불상도 포함





국보로 승격되는 범어사 소장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권4~5(사진 왼쪽)와 보물로 지정되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사진 오른쪽).

불교 성보문화재 국보 · 보물로 잇달아 승격 ·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 스님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고려의 고승 일연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역사서로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의 역사 · 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처음 간행한 시기나 간행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확인 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1394년 경 판각된 조선 초기 판본이다.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完帙)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빠진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 · 학술적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범어사 소장본은 서체, 규격, 행간(行間) 등에 있어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조선 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됐다. 단군신화를 비롯해 향찰(鄕札, 신라식 음운 표기방식)로 쓴 향가(鄕歌) 14수가 수록돼 한국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삼화령 애기부처’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과 합천 해인사와 공주 갑사의 불상 · 복장물 · 복장전적들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신라 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을 비롯해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 총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 계곡 중 한 지류인 장창곡의 정상 부근 석실(石室)에 있던 불상으로, 관련 기록과 조각 양식 등으로 보아 신라 시대 7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삼존상은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644년(선덕여왕 13년) 생의(生義) 스님이 경주 남산 골짜기에서 발견해 삼화령(三花嶺)에 봉안한 미륵상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충담사(忠談師)가 차를 공양했다고 하는 삼화령 미륵세존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귀엽고 천진난만한 용모가 가장 특징적인 인상으로 꼽혀 ‘삼화령 애기부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에서 가장 빠른 의좌형 미륵삼존불이자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이 반영된 대표작”이라며 “7세기 신라 전성기의 수준 높은 조각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 사보살입상 복장전적’도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삼척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금동사자상’ 출토

불교문화재硏 발굴 조사서
사자진병향료 손잡이 사용
“韓병향료 연구 중요 자료”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삼척시(시장 김양호)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중 통일신라시대 사자진병향로(獅子鎭柄香爐) 손잡이에 사용한 금동사자상이 확인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영동지역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찰로 그간 금당지, 탑지 등 주요 가람시설이 확인됐다. 특히, 신라 시대에 왕이 임명하는 승단의 최고 통솔자인 ‘국통(國統)’이 새겨진 비조각(碑片)을 비롯하여 청동정병(靑銅淨甁), 금동번(金銅幡), 청동인장(靑銅印章)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어 위세 높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금동사자상은 사자얼굴 전면부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부식이 진행됐지만, 비교적 완전한 형태이다. 사자는 복련(覆蓮,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이 시문된 연화좌 위에 앞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 부식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는 도금이 남아 있다.

금동사자상은 불교에서 공양구로 사용되는 병향로 손잡이 끝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자진병향로’는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향로로, 현재 군위 인각사지 출토 사자진병향료를 비롯해 2점만 국내에 남아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자진병향로는 당과 통일신라, 일본 등 삼국에서 모두 사용한 향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사자진병향로에 사용된 사자상이 출토됨으로써 흥전리사지에서 사자진병향로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금동사자상은 한국 병향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 불교 전파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사자상.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병향료인 사자진병향료의 손잡이 부분이다.



본승은 건강이 안좋아 그동안 일제치하로부터 맥이 끊긴 불교 전통 의술을 발굴, 연구를 해오면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지구촌에서 오늘도 무수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어려울 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인가?
우리 불교가 지금 말법에 이르러 더는 발전할수 없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며 좁은 법당안에서 목탁만 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잘못된 식생활로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창출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병들어 고통받는 불자들만이라도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죽비 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비요법은 어려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죽비요법이란?
통증 및 혈을 두드리어 근육과 혈을 풀어주는 요법이라 합니다. 어느날 은사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죽비로 두들겨 통증을 없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체에 대한 지식과 혈에 관해 또는 불교 전통치료 처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치료법을 발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도인과 스님들이 침술등으로 치료를 하는줄 알고 있으나 의료법에 걸려서 마음놓고 치료를 할수가 없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묻혀가는 신비한 도술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 죽비요법을 발굴, 연구 개발한바, 침술보다 더큰 효력이 나타남을 경험을 통하여 알수가 있었고 하여 불가의 스님이나 일반 승도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우리 불교가 거듭날 수 있음에 뜻을 두고 소개하고자 하며, 한마디로 신비의 요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물론 수료 자격증까지 받을수가 있고 의료법에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천수천안 요법 ,무상심신법, 디딤법등 다각면에 요법을 경험하고 배울수가 있고 앞으로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여 세계적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수강생 모집 : 선착순 7명 ✻ 교육시간 1주일 , 수강료 500만원 ✻ 침식제공, 자격증 수료(1기생만 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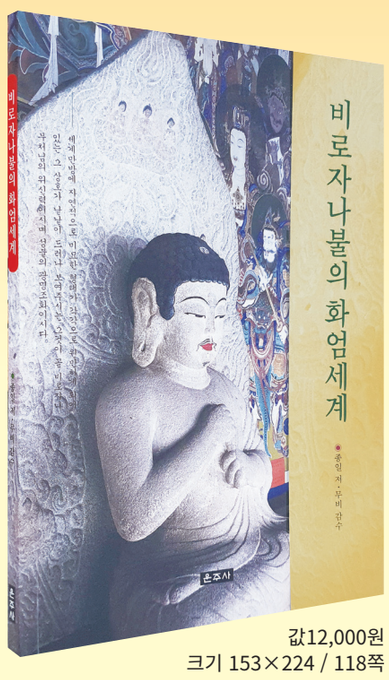
문의전화 033) 574-2387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석존합장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汝心
我心
如心

너 마음을
내마음 같이
하는 거!!!

權宗一 和南



값12,000원
크기 153×224 / 118쪽
운주사

구입문의 : 031-510-9077 권종일 스님